

## 앞선 기술·안정적 시스템...호남 최고 석공기업 우뚝

### 전남매일 CEO이카데미 원우기업 탐방

#### 정정수 청계기업 대표

시공 실적·노하우 인정 건설현장 만족도 높아  
직원들 복지 향상 최선...일자리 창출도 앞장  
친환경 시공 선도...“지역사회 동반성장 목표”

청계기업 정정수 대표는 제1기 전남매일 CEO경제이카데미에 참여한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 분야별 전문가들을 두루 만날 수 있어 더 넓은 세상이 보이고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직원들 회사경영의 '동반자'로 여기며 소중하게 대한다. 신뢰와 열정을 기업정신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일까 청계기업은 호남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 회사는 1998년 정 대표의 부친 정주석 사장이 설립한 석공기업이다. 대리석과 화강석을 가공해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한다.

정 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석공사업을 시작했다. 청계기업, 'IMF' 규제금융 시절, 시련을 겪었지만 열정과 독심으로 버티고 이제는 호남지역 석공 관련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 사장은 현재 아들 정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정 사장은 평소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는 경영철학으로 유명하다.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고 했다. 정 대표도 같

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평생 같이 가야 할 '평생 동반자'로 생각한다.

정 사장은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오투기처럼 다시 일어섰다.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아닐까 싶다. 정 대표는 12년 전부터 석공관련 사업을 이어받아 기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회사 일에 자부심이 충만하다. 아버지에 이어 청계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청계기업은 꾸준한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70%를 넘어서며 매우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청계기업은 석공 자체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원재료 직접 가공이 가능해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석공 관련 품질과 만족도가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또 보광건설을 비롯해 광주·전남 중견 기업체 뿐만 아니라 1군 건설회사의 일감



이 꾸준히 있다.

매출 다각화로 수익을 늘리고 매출이 안정됐다. 현재 경기도 하남 동탄, 천안, 경북 구미, 전북 익산, 경남 진주, 대구, 부산, 전남 순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원도, 울릉도를 비롯해 전국 어디든 석공 관련 시공이 가능하다.

-직원들 복지는.

▲직원들 근무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



보광건설 골드클래스 청라지구 문주시공 전경사진.

각해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쓴다. 특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부친의 경영이념을 이어받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자녀 학자금은 물론 직원 자기발전을 위해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 직원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기술향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시공을 하려고 힘쓴다. 다년간의 시공실적과 노하우가 우리의 자산이다.

-어려움도 많을텐데.

▲전문건설 사업은 쉽지 않다.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건설현장에서 공기일정을 잘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 A/S 등 하자처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석공일은 매우 전문적인 일이다. 장인 정신이 없으면 안된다. 거친 원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빛내는 석공들만의 희열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자부심이 있다.

-광주 지하철 2호선공사가 시작됐다. 참여하는지.

▲최근에 광주지하철 2호선이 착공됐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입찰을 통해서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전문건설업체에게도 직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

지역업체 공동의무참여를 통해 지역전문건설업체도 일감이 늘어나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설사 광주업체가 주수를 안했다더라도 지역하도급은 광주 지역 업체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업을 2대째 하고 있다. 각오 한마디.

▲기업을 잇고 있다는 것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건설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기업을 확대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 직원을 책임감 있고 결단성 있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왕 사업을 하고 있으니 더욱 키우고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더 길게 심사숙고하면서 즐겁게 사업하려고 한다. 든든한 직원들이 있잖은가.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배우면서 일해 나가야 한다. 아버지의 뜻과 기술을 잘 배워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의 석공기업으로 키우고 싶다. 나아가 안정이 된다면 지역사회발전과 함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싶다. /서미애 기자

## 광주은행 '광주 완성차 합작법인'에 260억 출자

### 160억 증액...3대 주주 확정

지역 기업 최초로 '광주 완성차위탁생산 합작법인'에 100억원의 출자 의사를 밝힌 광주은행이 160억원을 증액하며 3대 주주로 확정됐다.

광주은행은 국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1호이자 광주시의 최우선 역점사업인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3대 주주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260억원 출자금은 광주시(483억원), 현대자동차(437억원)에 이

어 세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합작법인 자본금(2,300억원)의 11.3% 수준이다.

이는 지난 4월29일 지역 기업으로서 최초로 100억원 출자 선언을 한 후 16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노사상생의 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확고한 위상 정립은 물론 지역민과 지역기업에 사랑받는 지역 향토은행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난 16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시장에게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 합작법인'에 출연금 260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보해양조는 한국 기업입니다"

### 보해 "일본 자본 매각설 허위...법적 대응"

광주·전남지역 항토기업인 보해양조가 '일본 자본 매각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18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최근 보해가 일본 자본에 팔렸다는 루머가 여수와 고흥, 담양 등 일부 지역에서 '보해가 일본자본에 매각됐다'는 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해양조는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매각설' 등 터무니없는 루머로 기업 이미지 등에서 큰 피해를 겪고 있

다"며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시장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해양조 전체 주주 2만365명 중 외국인 주주는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독일 등 54명이다. 일본인 주주는 단 한 명도 없다.

보해양조는 일본매각설과 관련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근거없는 매각설을 확산시키는 사람에게는 고소 등 법적조치를 통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D A E L A S O

	대	리	수	는
고	객	의	요	구
설	계	와	시	공
도	시	의	가	치
를	앞	서	생	각
공	간	을	넘	어
창	조	합	니	다

대리수건설(주)